

# 1907년 헤이그 특사의 여정

한국근현대역사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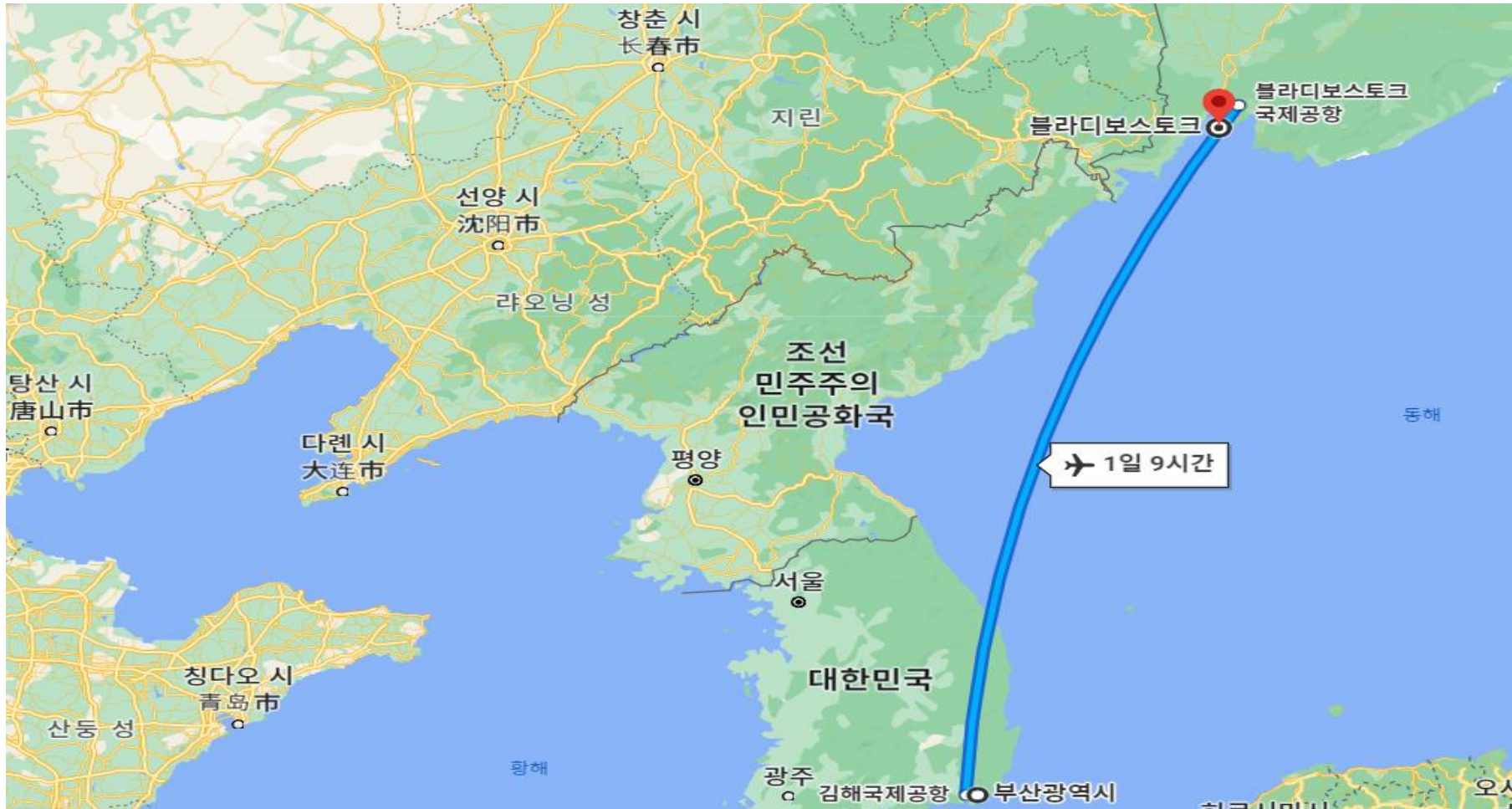


#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의 특사단

이준(48), 이상설(37), 이위종(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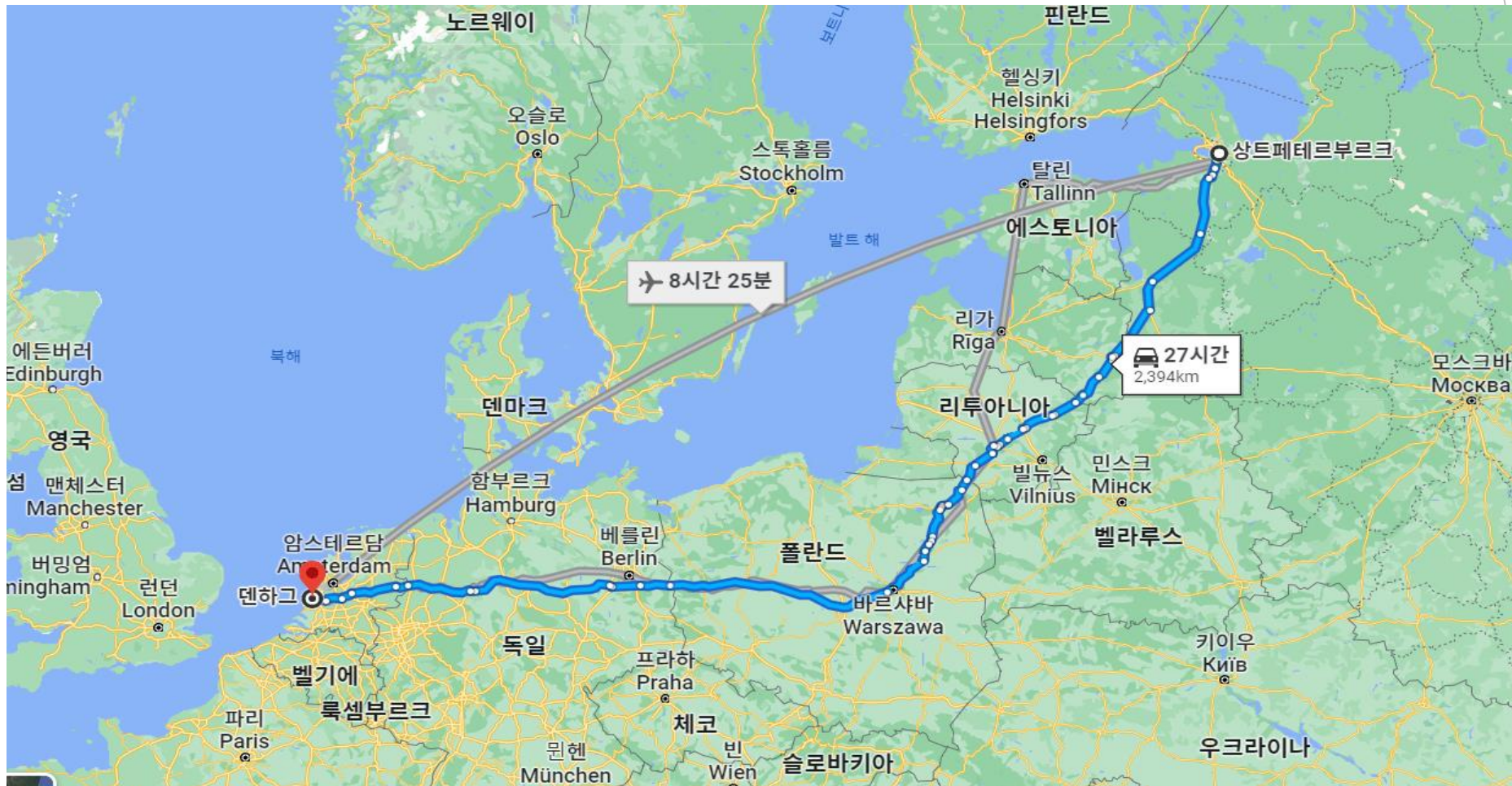


# 서울-부산-연해주 블라디보스톡 (경부선/시베리아 열차 탑승)





# 러시아 페테르부르크->네덜란드 헤이그





헤이그 이준기념관



# 1.1907년 만국평화회의의 배경

## ▶ 1899년 제1회 만국평화회의

- 제1차 세계대전 후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 주도로 연합국이 형성한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 제2차 세계대전 후 1945년 발족한 국제연합United Nations

## ◆ 1907년 제2회 만국평화회의(1907.6.5~10.18)

- 1904년 10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발의
- 1905년 9월, 러일전쟁 종전(포츠머스 조약) 후 러시아가 주관하기로 합의
- 1905년 10월, 러시아는 대한제국에 초청 의사 전달
- 1906년 4월 3일자 기록에 대한제국은 47개국 중 12번째 초청국
- 1906년 8월 개최 예정이었던 회의 연기-> 1907년 6월
- 러시아와 일본 간 협상 타결(1907.7.30), 러시아는 한국 지원 의사 철회



# 1.1907년 만국평화회의의 배경

- ▶ 1902년 2월 16일자로 만국평화회의 가입 신청
- ▶ 1905년 11월 17일(18일), 을사늑약 이후 고종황제의 국서 외교
  - 1906년 1월 29일자로 런던트리뷴지 기자 **Douglas Story**에게 의뢰, 북경 주재 영국 공사에게 전송한 국서 “5년간 열강의 공동 보호 요청“
  - 1906년 6월 22일자, 미국인 헐버트에게 내린 위임장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벨기에, 중국 등 9개국 원수에게 친서 전달 및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제소 의뢰-> 1907년 5월 8일 헐버트 출국. 헤이그에서 특사단 지원 활동



## 2. 1907년 만국평화회의 특사단의 경로

- ◆ 1907년 4월 20일자 고종황제의 위임장
  - 1907년 4월, 평리원 검사 출신 이준 발탁. 4월 21~22경 남대문역 출발->부산->연해주 블라디보스톡 도착(4.26), 북간도 화룡현 서전서숙의 이상설에게 전보(이상설은 1906년 망명).
- ◆ 5월 14일경 이준의 전보를 받은 이상설은 이동녕, 정순만과 함께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그곳 한인의 의연금을 전달받고, 5월 21일 시베리아 열차 탑승
- ◆ 6월 4일 러시아의 수도 페테르부르크 도착. 주러시아 공사 이범진의 아들로 미국 및 프랑스 유학 경험이 있는 이위종과 합류
- ◆ 15일간 체류하면서 러시아 짜르 니콜라이 2세 면담을 요청했으나, 실패





## 헤이그 특사단에 내린 고종황제의 위임장

“대한제국의 자주독립은 세계 각국이 인정한 바이고 각국과 조약을 체결했으니 열국 회의에 사절을 파견하는 것이 도리이다. 1905년 11월 18일 일본이 공법(公法)을 위반하여 외교대권을 강탈하여 열국과의 우의를 단절시켜 놓았다. 특사단은 헤이그 평화회의에 가서 우리의 고난을 피력하고 외교대권을 회복하기 바란다.”



# 러시아 짜르에게 보낸 고종황제의 친서

- ▶ “대한제국은 러일 전쟁 이전에 이미 중립을 선언하여 세계가 중립국임을 다 알고 있는데 ..... 일본이 1905년 11월 18일늑약 이후 우리나라에 가한 모욕과 기만에 대해 심히 민망하던 차에 헤이그에서 평화회의가 열린다는 말을 듣고 전 의정부 참찬 이상설과 평리원 검사 이준, 주 러시아공사관 참서관 이위종을 위원으로 특파하여 일본의 불법 행위를 각국 위원에게 알리고자 하니 세계가 모두 공법에 의거하여 공의로써 다시 한국의 국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敬白朕之良兄弟

俄羅斯國

皇帝陛下現以

貴國軍隊集合於滿洲一事於東洋政界上惹  
出無限恐怖之情而急迫形勢曾所未有者矣  
頃因日本報紙激動物議遂致日廷免不得將開  
戰釁此可逆觀早晚間

貴國與日本或成未裂之端也若至戰事開張  
敝國恐未免成一戰場若然則

貴軍旅之無疑奏功朕所預賀者也伊來

貴我兩國久誼親密不必贅陳而將來敝國如當

危難多事之日





<고종황제의 친서 2>





# 大德國大皇帝陛下

大德國

大皇帝陛下朕惟比來德韓交際日進友誼日  
密朕切喜且望永遠有賴於

貴邦扶助愛護不意時局大變強鄰之侵  
逼日甚終至奪我外交權損我自主政朕伯  
舉國臣民無不慟憤齎憾呼天泣血茲將

苦衷仰佈于

陛下萬望

垂念交好之誼及扶弱之義廣議于各友  
邦

設法保我獨立國勢俾朕及全國臣民含思  
頌德于萬世是所切祝

光武十年一月 日在慶運宮

陛下之良兄弟

契



<고종황제의 친서3>



大韓帝國特派委員前議政府參贊李相萬前平理院檢事李僞前駐俄公使館參書官李  
璿鍾委任狀

大皇帝勅曰我國之自主獨立乃天下列邦之所共認也朕向與列邦締約修好使並相望凡屬列  
邦會議應悉法其往來在一千九百五年二月十日日本對我國違背公法藉行非理實初五約  
雖簽就外交大權斷絕我列邦友誼不寧雖是日日本之欺侮使倭人無所不至其平度公理違悖人  
道有有不可勝記朕念及此實屬痛恨茲特派使品前議政府參贊李相萬前平理院檢事  
李僞前駐俄公使館參書官李璿鍾前往荷蘭海牙府平和會議備將本國諸款各款事情  
一陳于該席用復我外交大權復修我列邦友誼朕念此臣等素性忠實可堪是任宜其幹  
辦妥速無貽朕命欽哉  
大韓光武十一年四月二十日於漢陽京城慶運宮親署押鈐寶

大皇帝

卍



大韓帝國特派委員前議政府參贊李相萬前平理院檢事李僞前駐俄公使館參書官李  
璿鍾委任狀

大皇帝勅曰我國之自主獨立乃天下列邦之所共認也朕向與列邦締約修好使並相望凡屬列  
邦會議應悉法其往來在一千九百五年二月十日日本對我國違背公法藉行非理實初五約  
雖簽就外交大權斷絕我列邦友誼不寧雖是日日本之欺侮使倭人無所不至其平度公理違悖人  
道有有不可勝記朕念及此實屬痛恨茲特派使品前議政府參贊李相萬前平理院檢事  
李僞前駐俄公使館參書官李璿鍾前往荷蘭海牙府平和會議備將本國諸款各款事情  
一陳于該席用復我外交大權復修我列邦友誼朕念此臣等素性忠實可堪是任宜其幹  
辦妥速無貽朕命欽哉  
大韓光武十一年四月二十日於漢陽京城慶運宮親署押鈐寶

大皇帝

卍

## 2. 1907년 만국평화회의의 특사단의 경로

- ▶ 러시아 외상 이즈볼스키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의 의장인 러시아 대표 넬리도프(Nelidof)에게 대한제국 특사단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
- ▶ 1907년 6월 19일, 페테르부르크 출발-> 베를린에서 공고사 인쇄-> 6월 25일 헤이그 도착(회의 개막 10일 후)
- ▶ 1907년 5월 8일, 험버트도 고종의 친서를 가지고 서울 출발. 5월 9일 시모노세키 도착-> 고베-> 쓰루가(敦賀)-> 블라디보스톡-> 시베리아열차로 페테르부르크-> 독일, 스위스, 프랑스 방문. 베를린에서 영국 언론인 스테드(W.T. Stead)를 만나 한국의 처지 호소. 만국평화회의의 《평화회의보》 편집자로서 스테드는 한국 특사단의 공고사 전문을 게재해 주고, 관련 논설로 특사단의 활동 보도



## 2. 1907년 만국평화회의의 특사단의 경로

- ▶ 6월 25일, 헤이그 평화회의 제1분과위원회 방문, 고종의 친서 전달.
- ▶ 6월 27일, 평화회의 의장 넬리도프 방문, 7월 1일 네덜란드 외상 면담 요청.
  - “각국 정부가 이미 을사늑약=외교권 박탈, ‘보호’조약을 승인한 이상 대한제국정부의 외교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회의 참석, 발언권 요청 거부
  - 6월 28일, 프랑스어로 작성된 공고사를 평화회의 의장 넬리도프, 각국 대표, 외신기자들에게 전달.
  - 공고사 전문이 《평화회의보》 6월 30일자에 게재됨
  - 이위종이 평화회의 본회의장 정문 앞에서 신문기자와 인터뷰. “왜 대한제국을 제외시키는가?” “우리는 평화의 신을 찾아 그 제단이 있다는 헤이그까지 왔노라.”





## 2. 1907년 만국평화회의의 특사단의 경로

- ▶ 7월 9일, 스테드가 주관한 각국 신문기자단의 국제협회에 참석, 이위종의 연설.
  - 평화회의 참석 요청, 한국의 비참한 실정을 알리고 주권 회복에 원조를 청하는 연설 ‘한국을 위한 호소(L’Appel des delegues Coreens) 프랑스어 연설
  - 청중의 공감으로 즉석에서 한국의 처지를 동정하는 결의안 만장일치 의결.

“일본인들은 항상 평화를 말하지만 어찌 기관총구 앞에서 사람들이 평화로울 수 있는가. 한국민이 모두 죽어 없어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국의 독립과 한국민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극동에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한국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공동 목표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한국 국민은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이기적인 침략에 대항하고 있다. 어떠한 행동을 해서라도 일본인과 싸우려고 결심한 2천만의 한국 국민을 대량 학살한다는 것은 일본인에게 있어서 그다지 흥미 있거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다.” (《The Independent》 Vol.63, No.3064, August 22.1907, New York)



## 2. 1907년 만국평화회의의 특사단의 경로

- ▶ 7월 14일, 이준 순국(\*뇌일혈 사망설) 후 7월 21일경 이상설, 이위종은 헤이그를 떠나 런던을 거쳐 7월 24일 미국행 증기선 탑승.
- ▶ 8월 1일 뉴욕 도착.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면담 시도, 실패 후 미국 언론을 상대로 일본의 불법적인 국권 침탈과 아시아 침략의 위험성 제기
- ▶ 7월 20일, 고종 강제퇴위. 10월 18일 제2회 만국평화회의의 폐막
- ▶ 이상설은 1917년 연해주에서 사망. 이위종은 러시아에서 활동.
- ▶ 헐버트는 해방 후 양화진 외국인 묘지 안장



# 이위종의 미국 언론 인터뷰

big  
ound  
land  
n on  
urban  
Lots  
six  
\$500.  
area.  
25th.  
etc.  
21-24  
C.  
22.  
and  
near

## "WE'LL NEVER BOW TO JAPAN," WRITES KOREAN PRINCE IN U. S.

(Prince Tjong Ki, a prince and head of the Korean delegation that was refused admission to The Hague peace conference, having come to this country to arouse American sympathy for his troubled country, makes the subjoined statement regarding his mission.)

BY TJONG OUI KI.  
(Seattle Star's Exclusive Service.)

"WE'LL never bow to Japan," Japan promised that we should retain our independence, but did not keep its word.

The reason put forth for the attempted seizure of Korea is the sending of a **delegation of Koreans** to The Hague.

This is mere pretense. They had plans for the usurpation long prepared. Their action did not surprise me.

While they will try to control the country, we shall not permit it. We have no arms, it is true, but we shall never yield.

Our people will resist to the last man and the last drop of blood.

Our hope is that we may regain our freedom without making this



PRINCE TJONG OUI KI.

close the East against them.



### 3. 1907년 만국평화회의의 특사의 의의

- ▶ 약육강식의 제국주의시대에 두 차례나 평화회의를 개최한 국제사회는 정의가 아닌 ‘힘’에 의해 움직이는 세계였음.
- ▶ 보호국으로 전락한 대한제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보호국에서 벗어나는데 근대적 국제사회의 룰이라고 여겼던 만국공법=국제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음.
- ▶ **But**, 일본이 약소국인 대한제국 주권 침탈의 불법성을 국제사회에 폭로한 만국 평화회의의 특사 파견의 의의
  -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제 막 태동한 국제사회에 약소국이 참여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
  - 세계 평화를 목표로 하는 평화회의가 실제로는 강대국 간의 이해 타산과 밀실 흥정에 의해 작동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근본적인 질문 제기
  - 국가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과연 국제법이 중재하여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엄중한 현실적인 한계 지적

